

“전세계가 알아야”...영화 ‘장사리’가 불러올 잇힌 역사

한국전쟁 중 평균나이 17세 훈련기간 2주 772명 학도병 이야기

김명민 “송고한 희생정신들 기억 속에 묻혀졌다는 것 안타까워”

“장사리영화는 전 세계가 알아야 하는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매간 폭스)

인천상륙작전 D-1.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인 장사리 상륙작전을 위해 장사리로 향한 이들이 있다. 바로 평균 나이 17세, 훈련기간 단 2주에 불과했던 772명의 학도병들로, 이들은 약전후 속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총알을 맞으며 상륙을 시도했다. 배우 김명민을 필두로 최민호 김성철 김인권 과시양 등 배우들이 기억되지 않은 역사를 스크린에 불러온다.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압구정에서는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감독 광경택 김태훈/이하 장사리) 제작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광경택 감독과 김태훈 감독을 비롯해 김명민 김성철 김인권 과시양 장지진 이재욱 이호정 그리고 매간 폭스 등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장사리’는 한국전쟁 중 기울어진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었던 인천상륙작전 하루 전, 양동작전으로 진행된 장사리상륙작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평균나이 17세, 훈련기간 단 2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투입된 772명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날 광경택 감독은 ‘장사리’ 연출을 맡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기획부터 이 작품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의를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제 아버지였다”며 “남한으로 내려와서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웠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남과 북이 현재까지 갈라져 있는 상태를 안타깝게,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 이야기는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위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감독은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장사리상륙작전 이야기를 알게 되며 큰 매력을 느끼게 됐다”며 “광경택 감독과 공동으로 연출 진행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명민은 극 중 유격대의 리더 이명준 대위 역을 맡았다. 그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광경택, 김태훈 감독님과 작업이 영광스러웠다”고 운을 뗀 후 “‘장사리’ 전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어릴 적에 봐도 장사리 전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극 중 이명준 대위의 모델이자 실존인물인 이병흥 대위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전투와 가슴 아픈 송고한 희생 정신들이 기억 속에 묻혀졌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실존인물인 학도병 772명의 스토리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알아야 했다.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이런 작전이 있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야 했다 싶었다”며 “또 학도병이 주인공이지만 이명준의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그런 모습이 여러가지로 저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작품이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유격대 중위 박찬년 역의 과시양은 연습했던 촬영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광 감독님 김 감독님과 촬영하며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역사에 있어서 한 부분 그리는 영화다 보니까 엄숙한 촬영장인 면서도 한편으로는 즐겁게 촬영했다”며 “학도병 친구들이 뽀뽀 뽀뽀 수박에 현장이었다. 좋은 결과물로 희생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갖고 촬영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다치기도 하다 보니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좋은 결과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털어놓았다.

무엇보다 이 영화에 중군기자 매기 역으로 열연한 매간 폭스에게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쏠렸다. 매간 폭



스는 역사 기반 영화가 처음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동안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작업해본 적이 없었다. 또 여기 계신 광경택 감독님과도 작업해보고 싶었다”며 “내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억에 남는 한국 영화 제작 방식이었다. 그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한국이 영화 만드는 방식에 있어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촬영 동시에 편집이 이뤄진다는 점이 특별했다. 내가 다음날 촬영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찍은 신에 대한 편집이 이뤄지고

있더라. 혁신적인 영화 제작 방식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촬영했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CG 티틀, 로보와 작업했다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이 영화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경의를 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 좋아하는 한국영화가 있는데 ‘괴물’이다. 한국영화를 좋아하는 만큼 한국에서 많은 작업 기대해본다”고 털어놓았다. 끝으로 김인권은 “부상도 많았고 치열하게 촬영에 임했다. 그만큼 관

객 분들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민은 “멀리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가져준 매간 폭스씨에게도 감사하다”며 “772명 학도병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바”라는 소감을 덧붙였다. 매간 폭스는 “좋은 배우 분들, 감독님들과 이번 영화 작업할 수 있어 큰 영광이고 한국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장사리상륙작전은 전 세계가 알아야 하는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사리’는 오는 9월 25일 개봉한다. 뉴스1

‘서머 퀸’ 레드벨벳, ‘음파음파’로 전세계 36개 지역 1위



레드벨벳(Red Velvet)이 신곡 ‘음파음파’(Umpah Umpah)로 각종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서머퀸다운 파워를 입증했다. 레드벨벳은 지난 20일 발표한 새

미니앨범 ‘The ReVe Festival’ Day 2 (‘더 리브 페스티벌’ 데이 2)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홍콩, 인도 캄보디아,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

뉴스1

헤리 “‘응팔’ 이후 아쉬운 행보...받아들이기 두려웠다”

출연 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 내달 방영 예정

배우 겸 가수 헤리가 ‘자유분방’ 콘셉트 화보의 주인공이 됐다. 헤리는 21일 공개된 ‘지류 코리아’ 화보에서 인형 같은 미모를 자랑하며 독특한 콘셉트를 소화했다. 헤리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후의 행보에 대해 돌아켜보며 솔직한 속내를 진솔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큰 사랑을 받다가 아쉬운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회피하니 더욱 견줄 수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돌아보자, 받아들여보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전 스스로 돌아보는 법을 배웠고,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9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에서 말단 경리에서 출지에 대표를 맡은 이선심을 연기하는 헤리는 “선심이는 저와는 달리 약한 아이”라고 밝혔다. “선심이는 저와 동갑인 스물여섯 살이에요. 사회초년생의 나이죠. 또래 스텝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겐 세상이 너무 크고 자기 힘으로 이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죠. 가끔 대본을 읽으면 너무 속상해서 대신 싸



위주고 싶을 정도예요. 사람들이 선심을 보여 저런 친구도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이겨내는구나 느끼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